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소식

인천소식

김주희
인천일보 기자

제물포 서예문화사각대전 12일부터 17일까지 인천종합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제5회 대한민국 제물포 서예문화사각대전에 입상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전시회는 12~14일까지는 전지와 국전지 작품들로, 15~17일까지 반질지 작품들로 구성했다.

박황재형의 6번째 개인전

현대미술가 겸 이론가로 인천지역 화단에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는 박황재형의 여섯 번째 개인전이 16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렸다.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인천 소래 포구 갯벌 생태공원의 작은 웅덩이 주변에 자생하는 풀들의 변화를 렌즈로 담아낸 2~3m 크기의 대형 사진 30여 점으로, 작가의 지난 3년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작가는 전시와 관련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의 실재를 담아보려는 노력이자 시간 그 자체에 관한 탐구의 결과를 드러내고자 했다”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기’, 그리고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담론들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이번 작품을 통해 ‘과학적 엄밀성을 담보하지 않는 예술은 허망한 공상이며, 철학적 직관을 가지지 못한 예술은 조잡한 기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싶은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조그만 웅덩이 주변의 변화에서 존재와 부재,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진실과 의

인천문화재단이 올 문화예술육성기금 지원금을 확정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말까지 신청접수한 396건 중, 인천문화재단의 3단계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한 사업은 152건(38.4%)로, 총 지원금 규모는 8억8천998만 원이며, 평균 지원금액은 585만 원이다.

시가 직접 심의했던 지난 2004년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351건 중 203건(57.8%)이 지원사업으로 결정됐다. 평균지원금액은 506만 원이었다. 지난해까지 지원한 신진예술가 지원사업(3건)과 찾아가는 예술활동 지원사업(7건)은 올해는 배제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올해가 전년보다 지원사업건수는 줄었지만 지원금액은 다소 늘었다. 심의를 맡았던 김승재 TF팀장은 “우선 질 낮은 공연을 거르는 데 주안을 뒀다”며 “그 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신청금액 뺏기기나, 같은 단계에서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여러 건 신청하던 행위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면접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서류 검토 위주의 방식을 탈피하는 등 지원심사의 절차를 개선했다. 문화재단은 창의력과 기획력을 중심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재단이 1차 서류심사를 한 뒤 문화·예술인 및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이 2차 서류 심사를 했다. 이어 다른 전문가들로 심의위원을 교체해 개별면접방식으로 3차 심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이 심의를 맡은 2·3차 비중이 전체 심의의 80%를 차지했다. 재단은 심의결과와 심의위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신청 사업 396건 중 1차에서 73%인 291건이 통과했고, 여기서 203건(1차 대비 69.8%)이 2차 심의를 거쳤다. 면접 후 최종결정한 사업이 152건(2차 대비 74.9%)이다. 최원식 대표이사는 “원칙을 원칙대로 적용했다”며 “좋은 것이 많지 않은데도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동안 받아온 소액다건주의란 지적에선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많은 지원규모가 2천만 원이었고, 대부분 1천만 원 이하다. 신청금액을 뺏기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몸을 사린 경우도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소액’ 지원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5년 이상 인천에 거주하거나 활동한 개인이나 단체만 신청 가능한 까다로운 지원기준도 그대로다. 시가 지난해 기준에 적용하던 기준으로 접수한 신청서류를 재단이 넘겨받아 이번에 기준안을 새롭게 만들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현안과제다. 재단은 현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가 하고 있는 시민모니터링 사업과 연계도 고려하고 있지만 전문성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아 고민하고 있다.

최 대표이사는 “심의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기준안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를 찾아내려는 작가의 시선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박황재형은 강릉고등학교와 경원대학교 미술대학을 거쳐 현재 월간 『인천미술』 주간을 맡고 있다. 5회의 개인전 및 15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아카데미 헤르메스에서 미술과 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박치성-내면을 투영한 주제들을 형상화

‘인체의 미’를 테마로 누드화를 주로 그려온 화가 박치성이 인간 내면을 거쳐 투영된 삶과 시간, 환경과 자연에 눈을 돌렸다. 그리곤 캔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료와 장르를 넘나들며 창작의 영역을 펼쳐보였다.

11일부터 인천 갤러리 진에서 열린 박치성의 열두 번째 개인전은 이렇듯 과거의 틀을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는 작가의 변신 자체가 관심을 끌었다.

21점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는 ‘혹우’, ‘길 없는 길’, ‘연꽃’ 등을 주제로 연작들을 선보였다. 3점의 작품이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은 모두 실존하지 않는 것들로 오로지 작가가 내면의 세계를 통해 투영한 주제들을 형상화했다.

‘길 없는 길’의 경우 불교적인 색채를 지닌 운회와 많은 길이 곧 길이 없는 것과 같다는 진리를 담았다. ‘혹우’는 비가 오기 전·후의 느낌을 통해 환경과 인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숨어 있는 등 대부분 작품들은 비현실적이나 현실에 작용하는 중요한 내적 세계를 그렸다.

특히 이번 작품들은 캔버스 위에 그린 것이 아니라 판넬 위에 종이를 배접한 뒤 먹, 오일 파스텔, 잉크, 아크릴 등을 사용, 박치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던져줬다.

작가는 “이번 전시회는 앞으로 작가로서 나아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며 “그 동안의 작품활동을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작품세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들이 이루어질 길 바란다”고 전시의도를 밝혔다.

김포와 인천에서 서해안풍어제 열어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김금학 선생이

새해를 맞아 김포와 인천에서 풍어와 만선을 비는 ‘서해안풍어제’를 열었다.

오는 16일 김포 대명리 대명포구를 시작으로 22일 인천종합어시장과 23일 소래포구에서 진행했다.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바닷가 마을이나 배를 부리는 집에서는 해마다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풍어를 기원하는 굿을 한다. 서해안풍어제는 황해도 일대에서 성행하던 풍어의식이다. 마을굿 형태인 당산맞이와 대동굿, 그리고 풍어를 기원하며 선주들이 하는 배연신굿 등 크게 3개로 구성돼 있다. 예술적인 면에도 그 우수성이 돋보인다.

대동굿은 황해도 해서지역, 특히 웅진군의 뱃사람들이 풍어로 만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온 마을 사람들이 한바탕 즐기던 축제다. 배연신굿은 배를 부리는 선주가 풍어와 집안의 재수를 위해 벌이는 굿이다.

16일 김포에서는 오전 6시 당맞이를 시작으로 집집마다 세경돌기를 한 뒤 오후에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배연신굿을 진행했다. 인천종합어시장에서는 오전 어시장 내 상가를 돌며 무사와 풍요를 비는 세경놀이를 진행한 뒤 마을잔치를 벌였다. 보름날인 23일 소래포구에서도 풍어제를 진행했다.

경기소식

류주선
경인일보 기자

의왕미협이 <모락산성의 봄-일상 속으로>

의왕시가 한성백제기(4~5세기) 모락산 정상 부근에 위치했던 모락산성(둘레 920m)을 복원키로 발표한 가운데, 한국미술협회 의왕시지부(지부장·임근우)가 이를 반기듯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롯데백화점 안양점 7층 롯데화랑에서 <모락산성의 봄-일상 속으로>전을 열어 시민들의 눈길을 모았다.

이번 전시회는 모락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모락산을 역사와 예술이 숨쉬는 산으로 가꿔 나가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24명의 의왕 지역 작가들이 참여해 꾸민 전시회는 그 동안 의왕미협이 추진해 온 ‘한 집, 한 그림 걸기 운동’의 일환으로 50호 이내의 소품전으로 꾸며져 관심을 더했다.

전시공간도 기획의도에 걸맞게 응접실, 주

방, 어린이방, 안방, 서재, 공부방 등 가정을 그대로 옮겨 놓았고, 각 방의 성격에 맞는 작품들을 배치해 실생활에서 어울릴 수 있는 작품을 직접 비교·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시작은 신현옥의 「조지훈님의 행복론」과 박연기의 「자족상락」 등 서예작품, 박재홍의 「정(情)-설(雪)」 등 전통 한국화에서부터 유화로 동양화풍의 대나무를 그린 구정자의 「대나무」 등 동·서양의 융합적 요소를 추구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현대미술의 특징을 한눈에 엿볼 수 있게 구성했다. 의왕미협은 이 전시회에 이어 23일부터 3월 3일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의왕 아트페어>를 열어 미술시장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을 주부들과 함께

부천시립예술단이 클래식 음악을 대중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내놓아 주부 등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천필(음악감독·임현정)과 부천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이상훈)은 오전 시간대에 여는 <모닝 콘서트>와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하는 <부천필과 함께하는 음악감상>을 운영해 통상 저녁 시간에 열리는 음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부층을 공략하고 있다.

먼저 모닝 콘서트는 콘서트장이 아닌 복사골문화센터 내 음악카페 문화사랑'에서 고급 실내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셋째, 넷째 금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2월에는 부천필 목관 앙상블의 <목관 악기로 듣는 오페라>와 현악앙상블의 <댄스 오브 스트림>이 열려 실내악 앙상블의 세계를 안내했다. 3월에는 부천시립합창단 오페라중창단의 <사랑의 아리아>와 예술가곡팀의 <독일 가곡, 꿈과 사랑의 노래>가 진행된다.

또 <부천필과 함께하는 음악감상>은 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36강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복사골문화센터 4층 미디엄감상실에서 진행된다. 모차르트 오페라에서부터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까지 다양한 음악영상을 부천필 최은규 공연기획팀장과 피아니스트 박유미가 해설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공모작으로 여는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올해 9회째인 수원화성국제연극제의 일정이 발표됐다. 행사를 주최하는 (재)수원화성문화재단(이사장·이장우)은 올해 행사를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화성행궁과 연무대, 수원야외음악당,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수원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월 11일 밝혔다. 또 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장우 이사장과 김용서 수원시장이, 집행위원장-예술감독은 신일수(한양대 인문과학대학장·연극영화과)-김철리(서울연극협회 이사·극단비파 상임연출) 체제로 결정됐다. 재단측은 올 참가작 일부를 전국의 극단과 개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방침을 밝히고 지난 2월 말 공모작 접수를 받았으며 올해 역시 행사 방향을 실험적이고 난해한 작품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해, 가족 단위 관람객을 보다 많이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소식

장기영
강원일보 기자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 개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선아리랑학교 <추억의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재1리에 터를 잡고 2월 25일 개관된 <추억의 박물관>은 강원도 내에 처음 문을 연 한국 근·현대사 자료 전문 박물관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기존 정선아리랑학교로 쓰이던 학교 교실 2동을 개조해 꾸며졌다. 현재 민요자료 1,125점을 비롯 고문서, 근현대사 자료, 광업자료, 서화 등 모두 1만1,253점을 소장하고 있다. 정선아리랑학교는 이번 추억의 박물관 개관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먼저 '애들이, 이런 거 본 적 있니?'를 주제로 한 개관기념전이 호응을 얻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조선시대 교과서인 『아희원람(兒戲原覽)』의 목판본을 비롯 일제강점기부터 시대로부터 다양한 성적표, 졸업장, 장난감, 수첩 등 방대한 양의 교육관련 자료가 주목을 끌었다. 이어 작은 박물관과 지역사

회의 발전가능성을 주제로 한 개관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건립된 200명 수용 규모의 야외공연장에서 정선아리랑 강좌 및 축하 공연을 갖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열린 문화공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용선 정선아리랑학교장은 '추억의 박물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정보를, 어른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해마을 문향 가득한 행사 마련

지난해 만해 선사 입적 50주년을 맞아 '만해축전', '토요문학아카데미 전국민족문학인대회' 등 뜻깊은 행사를 치른 강원도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대표·신경림)이 올해도 문향 가득한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만해청소년교육관이 8월에 개최하는 '만해축전'에 맞춰 문을 연다. 7회째를 맞는 '만해축전'은 세계문인대회를 함께 개최해 국제적 행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문인들의 참가도 기대되고 있다.

△토요문학아카데미=지난해 신경림 이경자 정희성 김형경 김원일 황지우 성석제 씨 등을 초청해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 올해도 5월부터 매월 실시한다. 기성문인은 물론 문학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 강의 및 작가와의 대화 등으로 진행한다. △2005 만해축전=8월 초에 개최하며 만해 한용운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고 건전한 상생적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만해대상 시상, 전국고교생 백일장, 만해시인학교, 학술심포지엄, 문예 전시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실시한다. 국제행사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세계문인대회가 눈길을 끈다. 만해마을과 강원일보사가 공동주최하는 전국고교생백일장'은 유일하게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고교생 문학행사. 올해부터는 강원일보사가 주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친다.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산마을민속캠프=10월에 개최한다. 탈북동포들의 남한 사

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마련하는 행사. 우리 고유의 민속문화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탈북자 문제도 함께 조명한다. △남북한 만해학술대회=8월 만해축전에 맞춰 개최한다. 만해 선생의 생애와 사상, 문학세계 등 전반에 걸쳐 조명하는 만해학술대회. 학술 및 문화교류를 통해 통일시대를 여는 계기로 마련한다. △강원문학의 뿌리를 찾아서=분기마다 강원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준 도출신 문인들의 창작의 고향과 작품 소재를 찾아 떠나는 문학기행. 전국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 빼어난 강원문학을 홍보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 △주민과 함께하는 만해마을문예학당을 비롯 △강원도 내 도서관 문예창작반 창작워크숍(5월)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푸른나무 예술제(5월) 아프면서 크는 나무 청소년 인권문화제(5월)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심성수련캠프(7월) 등을 펼친다.

충북소식

이현숙
충청투데이 기자

충북예총, 충북민예총 정기총회 개최

-새 사업 구상

충북예총은 1월 28일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4년 주요사업 보고와 결산 감사보고,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 신규사업으로는 오는 6월 중 제2회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을 개최하며 기존 사업으로는 제17회 충북청소년예술제(5월), 제6회 청풍명월 청소년한마음축제(5월),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10월), 제47회 청풍명월 예술제(10월), 새해맞이 희망축제(12월)를 펼친다. 해외 교류 사업으로는 오는 7월 한·중 예술문화교류를 개최하여 세미나로는 충북예술 발전을 위한 워크숍(6월), 제18회 충북예술발전 심포지엄(12월)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제20대 회장에 장남수 회장이 선출됐다. 장남수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충북예총이 충북예술의

심장이 되도록 예술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며 "지역간 예술문화 불균형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생활 속의 예술문화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민예총도 2월 4일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4년 사업결산보고 및 2005년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올 주요사업은 충북단오맞이 큰잔치(6월), 제7회 충북제주문화예술교류(6월), 한·베트남 문화예술교류(4월), 충북민족예술인대회(8월), 제13회 문화예술정책세미나(10월)를 펼친다. 특별사업은 광복 분단 60주년 기념 제12회 충북민족예술제, 충북문학지도발간, 올해의 예술가상, 청년예술가 창작지원금 지원 등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연중사업으로 문화예술경영아카데미, 청소년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예술강좌 등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제정할 올해의 예술상과 청년예술가 창작지원금 기금에 김운, 조승주, 채희남, 장호정 씨가 각각 받았다. 충북민예총 김승환 회장은 "올해는 광복 분단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민족예술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라며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국제적으로 확대해 충북지역 예술의 정체성을 넓혀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민예총

베트남과의 1차 교류

청주민예총이 올 들어 처음으로 베트남과 해외 교류의 물꼬를 텄다.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베트남 투이호아 문예성을 방문, 한국과 베트남간에 1차 국제문화예술교류를 다졌다. 이번 교류는 청주민예총이 지난해 8월 충북에서 베트남 푸엔성과 국제문화예술교류 협정 조인식을 가진 이후 답방으로 마련된 행사다. 베트남 해방 30주년과 한국의 분단 60주년을 기념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다. 청주민예총 방문단 일행은 방문기간에 두 나라 양 도시의 예술인 교류시 푸엔과 교류방식과 교류 가능 분야를 논의하고 양국간 문화적 동질성을 찾는 행사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청주민예총은 이번 1차 교류를 시작으로 매년 베트남 푸엔성과 한국을 오가며 문화예술을 상호 교류할 계획이다. 본격 교류로는 오는 7월 청주민예총 회원 30명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오는 2006년 7월에는 베트남 푸엔성 소속 예술가 30명이 청주를 방문한다.

청주 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

청주 예술의전당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기획한다. 행사는 4개 예

술단 정기공연과 테마 기획공연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예술의전당 옥내의 공간에서 봄, 가을 집중적으로 펼쳐진다. 청주시향은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정기연주회 등 특별기획 연주를 마련했다. 합창단은 지난해 기획공연으로 선보인 「사운드 오브 뮤직」을 환상적인 뮤지컬로 준비한다. 이외에도 시민가곡부르기대회를 개최해 시민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펼친다. 국악단은 국악의 대중화 작업을 테마로 작품을 구상했다. 창극 직지의 만남을 시도하고 동주도시 순회연주회를 기획, 전통과 현대를 대비시키는 작품을 구상한다. 무용단은 「춤 직지」를 전국 무대에 올린다. 시립예술단의 야외 콘서트로 5월에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연인을 위한 장미콘서트를 기획한다. 8월에는 한여름 밤의 콘서트가 열리고 10월에는 국악단과 무용단이 연합으로 추억의 가을콘서트를 펼친다. 이 밖에 시립예술단은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예술공연을 시도한다. 결혼 10주년과 20주년, 30주년을 맞는 시민 100쌍을 초청해 이벤트를 결정한 행사를 준비한다.

대전·충남소식

한성일
충도일보 기자

모리스 베자르 공연

지난해 10월 뉴욕필하모니가 대전에 와서 손연음과 협연으로 공연하며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현대 발레의 신화라 일컫는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이 대전 단독 초청 공연을 갖게 됐다.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의 내한 공연은 4년 전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이번 공연은 모리스 베자르의 안무 5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2001년도에 선보였던 「렐 & 바르바라」, 1982년 작품인 「닌닌」, 70년 작인 「볼세」, 61년 작인 「볼레로」 등을 모두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는 「볼레로」에 엑스트라로 참여할 남자 무용수를 모집하는 한편 발레 코

찾아가는 공연 선거법 저촉 논란 따라 조례 개정키로

대전시는 올해 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을 200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160회 공연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올해 초 대전시립합창단이 우송예술회관과 대전시민회관에서 신년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하게 되자 선거법에서 이는 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위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시립합창단은 회비를 낸 회원들에게만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청된 무료 관객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그 며칠 후에 열린 시립무용단의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지난해까지는 무료였으나 올해는 선거법 저촉 논란에 따라 어린이 500원, 어른 1,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공연하게 됐다. 예술단들이 병원, 도서관, 고아원, 양로원을 찾아가는 공연과 시립무용단이 해마다 여름이면 시립미술관 분수대 앞에서 펼쳐왔던 <한여름 밤의 댄스 페스티벌>, 여름에 보문산에서 펼쳐졌던 보문산 야외음악당 공연,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야외원형극장에서 펼쳐졌던 무료 공연들이 이로 인해 모두 차질을 빚게 된 것. 이에 따라 시는 조례를 개정해 시청에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낮 12시 20분에 해오던 정오의 예술마당이나 입장료를 받기가 어려운 야외공연, 그리고 시가 지정한 기념일이나 국경일, 공휴일 공연 등은 무료 공연이 가능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해 3월 중 임시회에 상정, 통과시킬 계획이다.

치에게 직접 발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기로 했다.

현대 발레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베자르의 작품을 감상할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대전에서 제1회 전국 록 페스티벌 연다

대전의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10여 개 밴드 로커들이 제1회 전국 록 페스티벌을 열기로 결의했다. 한국민예총 대전충남지회와 대전문화연대가 이에 힘을 보태주기로 한 상태다.

기획을 맡은 김유신 위원장은 '대중문화의 꽃인 대중음악은 음반시장 몰락과 립싱크에 대한 제재로 라이브 문화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으나 상업성 논리로 대중음악의 지원과 관심이 부재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소위된 대중음악의 부가가치를 고려하면 정책적으로 키워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순수한 밴드 음악에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회 전국 록 페스티벌은 '퍼스트 라온 밴드 페스티벌'로 명칭이 확정됐으며 3월 26일 오후 4시 대덕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출연팀은 대전의 '유나이트 보스', '솔티 도그', '마하티마', '잭 인더 박스', 대구의 '아프리카' 팀 등이다.

민족예술단 우금치 잇단 경사

민족예술단 우금치(대표·류기형)가 올해로 창단 15주년을 맞아 국립극장에서 해방 60주년을 기념하는 릴레이 공연을 펼치게 됐다. 5월 한 달 동안 7개 작품을 초청 공연하는 것으로 사회 문제의식을 다룬 총체적인 작품들이 무대에 오른다.

민족예술상 대상을 수상한 우금치의 초창기 작품인 「아줌마 만세」를 비롯해 지난 연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앙상블홀 무대에 올랐던 창작초연극 「노다지」, 통일문제를 다룬 「꼬대각시」를 공연한다. 이 「꼬대각시」는 젊은 처녀들의 점신놀이를 선보인 작품이다.

또 민족극한미당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갑오동학을 다룬 작품 「우리 동네 갑오년」은 우금치가 농민 문제부터 출발해 농민 집회 현장을 돌아다니며 웃고 즐기며 나름대로 작가가 수정해 나온 작품이다. 우금치

가 총애를 받게 된 시발점이 된 작품이기도 하다.

「해아 해아」는 매년 인동장터에서 펼쳐지는 3·16 행사를 다룬 작품으로 만세운동에 대한 거리굿 개념의 작품.

류기형 대표는 '5월 한 달간 서울국립극장에서의 기획 초청 공연을 마치면 오는 7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야외원형극장에서 주말 상설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금치의 평화마당극 「꼬대각시」가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및 문화예술 교육프로 그램 공모에 당선됐다.

이로써 우금치는 지방 연극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지난해의 「쪽빛황혼」에 이어 두 번째 공모에 연속 당선되는 쾌거를 올리게 됐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전국문예회관에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로서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다.

이번 공모에는 난버벌퍼포먼스, 뮤지컬, 마임, 아동극, 무대극이 포함된 연극 부문에서 총 191개의 작품이 응모해 극단 여행자의 「한여름 밤의 꿈」, 극단 연희단거리퍼의 「오구」 등 44개 작품이 선정됐다. 이중 마당극 으로서는 배우협회의 「꿈에 본 내 고향」과 우금치의 「꼬대각시」 두 작품만이 선정됐다.

경남소식

강 동욱
경남일보 기자

도립미술관 〈유럽 거장 6인전〉 열어

경남도립미술관은 오는 4월 13일까지 르누아르, 피카소, 위트릴로, 사갈, 잔썬, 뷔페 등 〈유럽의 거장 6인전〉을 제4, 5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작품은 르누아르의 인물 유화 2점과 피카소의 입체주의 판화 2점, 위트릴로의 풍경유화 4점, 사갈의 환상주의적 유화 4점과 판화 10점, 잔썬의 유화 12점, 뷔페의 유화 3점 등 총 37점이 소개된다. 특히, 인상주의 화가이며 관능과 기쁨의 화가로 불리는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1841-1919)의 후기작품으로 고전

적인 포즈의 복숭아빛 색깔을 표현한 견고한 누드화가 선보이며, 20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거장인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표현주의적 영향을 받아 검정의 강한 윤곽선을 특색으로 도시 풍경을 표현한 뷔페(Bernard Buffet, 1928-1999), 몽마르트 풍경을 그린 화가로 유명한 위트릴로(Maurice Utrillo, 1883-1955)의 작품 등이 전시된다.

아울러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화가로 불리는 사갈(Marc Chagall, 1887-1985)의 작품은 러시아 민족주의 주제와 유대인의 성서에서 영감을 받아 낭만적이고 개인적인 순수한 표현을 발전시킨 유화 및 판화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대동제 1월 12일-23일까지 열려

마산 창원 김해 진해 합안 함천 고성 통영 등지의 예술인들이 모여 세배와 덕담을 나누는 화합의 자리인 제18회 마산 대동제가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마산 문신미술관과 대우백화점 갤러리 등에서 열렸다.

대동제(공동대회장 이광석·박춘성)운영위는 1월 11일까지 시민들과 예술인들을 상대로 미술과 사진 등 각 분야에 걸쳐 150여 점의 작품을 제출받아 12일부터 21일까지 대우백화점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각종 부대행사를 가졌다.

12일 오후 5시부터 마산 대우백화점 갤러리에서 합동세배와 사물놀이, 무용, 합창, 자축연 등으로 대동제 개막식을 열었으며 16일 오후 6시에 대우백화점에서 마련되는 예술의 향연 행사에는 문학 음악 미술 등 각 분야 시낭송, 독창, 중창, 기악 등의 음악공연과 국보예술단의 춤공연, 우리가락 한마당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마지막 날인 23일 후에는 문신미술관에서 세계적인 조각가 고문신 선생을 비롯해 마산 출신 예술인들에 대한 합동추모제를 갖고 폐막되었다.

경남 연극협회장에 정석수 씨

지난 1월 30일 오후 3시 통영 박수골 전용 소극장에서 연극협회 경남도지부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경남지역 11개 지부 33인의 대의원들이 모여 2004년

예산을 감사하고 올해부터 3년간 연극협회 경남도지부를 이끌 협회장 선거가 있었다. 이날 선거에는 박빙의 승부로 치러진 가운데 정석수 마산지회장이 연극협회 경남도지부 협회장에 당선됐다.

특히 총 3번의 투표로 치러진 이날 선거에는 1차 투표 때 천영형 대표 12표, 정석수 회장 11표, 현태영 대표가 10표를 득표, 근소한 차이로 득표한 가운데 정관규정에 따라 후보들이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종다수제의 규정에 따라 천영형 대표와 정석수 회장의 두 후보의 2차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1표의 무효표와 두 후보가 16표 동표를 얻어 3차 투표에 들어갔다. 3차 투표에서 천영형 대표와 정석수 회장이 14 대 19표를 얻어 정석수 회장이 올해부터 3년간 연극협회 경남도지회를 이끌 차기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날 집행부는 감사에는 조현우 함양지부장과 허영호 김해지부장이 선임됐고 사무국장은 극단 마산 김태준 씨로 결정됐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11개 지부 지회장들이 모여 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운영위원에서 3월에 열릴 경남연극제 일정의 윤곽이 정해졌다. 올해 경남연극제는 내달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진해시민문화회관에서 치러지며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함양지부를 제외한 10개 지부가 참여할 예정이다.

서예협회 도지부장에 박원제 씨 당선

한국서예협회 경남도지부장에 박원제(52) 전 진주지회장이 당선됐다. 한국서예협회 경남도지부는 지난 12월 22일 오후 4시 진주 남강부페에서 제16회 정기총회를 갖고 신입 도지부장에 박원제 씨를 비롯해 앞으로 2년간 도지부를 이끌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새 임원진으로는 부회장에 김수만(진주) 주무열(양산) 이중호(창원) 씨와 앞으로 선출될 마산지부장이 선임됐으며, 감사는 고상준(사천) 김성영(통영) 씨가 맡았다. 사무국장은 김상화 씨가 임명됐다. 총 회원 325명 중 2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2004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올해 사업계획 심의에 이어 임원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윤이상 타계 10주년 청소년합창제

윤이상 서거 10주년 전국 청소년합창제가 1월 18일 오후 7시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통영음협과 통영시가 주관하고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서울 샤론 소년소녀합창단, 웰리체어린이 합창단, 서울 강남어린이 기악앙상블, 아름나라 어린이 예술단이 참여해 윤이상 선생 곡과 한국민요, 북한민요, 외국인민요와 드라마 대장금 주제곡 등을 선보였으며 서울 강남어린이가 지이브댄스팀이 특별출연했다.

부산소식

박성권
국제신문 기자

세계적인 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부산 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선정

지난 2003년 11월부터 1년 2개월간 공식 중인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선정됐다. 아니시모프는 마크 고렌슈타인(러시아) 블라디미르 킨(러시아·작고) 반초 차브다르스키(유고·작고)에 이어 부산시향을 맡은 4번째 외국인 지휘자가 됐으며, 부산시향 운영도 정상에 되찾게 됐다.

아니시모프는 벨로루시 국립 필하모닉 수석 지휘자와 아일랜드 국립 심포니 명예지휘자를 역임했다.



고 이수현 씨 추모제 및 추모공연 열려

지난 2001년 1월 26일 일본 도쿄 지하철신오쿠보 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고 숨진 고(故) 이수현(당시 27세, 고려대) 씨의 4주기 추모제와 추모공연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월 4일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의인 이수현재단설립위원회(위원장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가 주최한 고 이수현 4주기 추도 및 추모공연 한일 가교(架橋) 이수현 행사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고인이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부산에서 다녔고 그의 묘소(부산 영락공원)와 추모비(부산어린이대공원)가 있어 '의인의 고향'이라는 상징성 때문. 1~3주기 추모제는 지금까지 모두 일본 현지에서 열렸다.

고 이수현 씨가 고귀한 희생으로 한일 사이에 우정의 다리를 놓았다는 의미를 기려 '가교'로 이름 붙인 추모공연에는 명창 안숙선 씨가 '수현아! 우리 아들 수현아!'를 판소리로 부르는 것을 비롯해, 소리꾼 장사익 씨와 재일동포 성악가 전월 씨의 추모노래, 가수 이안의 추모시와 추모곡, 신동 춤꾼으로 잘 알려진 석예빈 양의 보살춤 등이 펼쳐졌다.

부산 '미술의 거리' 생김다

부산에도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 같은 명물 '미술의 거리'가 생긴다.

이 거리는 지역의 전업 미술가들의 작업실을 한곳에 모아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림도 판매하며 날로 침체되는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야심 찬 프로젝트이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주관으로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부산지회 이종렬 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입주 작가들을 모집하고 있다. 미술의 거리가 들어설 장소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입주 점포가 점점 줄어드는 중구 신창동 4가 국제시장 지하상가 제1라인. 이곳은 지난해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 20억 원을 들여 산뜻하게 리모델링했다.

서양화 한국화 서예 판화 공예 인물캐리커처 등 6개 장르에서 서로 작업 내용이 겹쳐지지 않는 분야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선별해 모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20여 명의 지

역작가들이 신청했으며 입주조건은 5평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80만 원에 월 관리비 7만 원이다. 입주 작가들은 주 4일 정도 이곳에 나와 작업해야 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집중 방문 시기나 특별 행사 때 또는 부산 시에서 필요한 날에 자신들의 작업실에서 작품을 시연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시 시설관리공단과 한국전업작가협회 부산지회는 3월까지 입주 작가들이 작업실 등을 꾸미게 한 뒤 오는 4월 1일 미술의 거리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다.

대구 · 경북소식

이경달
매일신문 기자

오사카 국제미술대제전 참가

2월 1일부터 6일까지 일본 오사카 아시아태평양무역센터에서 열린 2005 오사카 국제미술대제전에 대구작가 문상직, 윤병락, 장기영, 이천우 씨 등이 참가했다. 한일수교 4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주최로 열리는 2005 오사카 국제미술대제전은 한일현대미술전과 오사카 아트페어로 나뉘어 열렸다. 한일현대미술전은 한국작가 90명을 비롯해 양국의 작가 200여 명이 참가했고 오사카 아트페어에는 한국작가 73명과 일본작가 42명이 출품했다. 아트페어에 참가하는 한국화가 이천우 씨와 서양화가 문상직, 윤병락, 장기영 씨는 개인 부스에 각 20호 내외 작품 9점을 출품했다.

사경 연구가 뉴욕 초대전

사경 연구가 김경호 씨가 2월 4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전통사경초대전을 가졌다. 대구 보현사 보현문화관 사경 지도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전통 사경 10점과 현대식 응용 사경 20점, 탁본 응용 사경 8점 등 총 30여 점을 선보였다.

대구 이미징 아시아 3월 24일 개막

아시아 10개국 3만여 명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사진영상축제인 대구 이미징 아시아(Imaging Asia in Daegu)가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미징 아시아'란 미국프로사진가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이미징 U.S.A 공모전에 아시아권 사진작가들이 물리자 미국프로사진가협회가 아예 공모전을 따로 개최하기로 한 행사. 지난해 일본과 한국이 유치 경쟁을 벌인 끝에 대구로 개최지가 결정됐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와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최하며 공모전뿐 아니라 사진작품전시, 기자제 전시회, 촬영대회까지 어우러지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미국프로사진가협회 공모전 입상작 200여 점, 중국 국전 입상작 200여 점, 일본작가 초대전, 국내 유명작가 작품전 등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사진 작품 수백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포토살롱이 열려 전국 사진애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립무용단 한국현대무용 뮤지엄 초청

우리나라 현대무용의 역사적 발자취를 회고하는 무용 축제인 '한국현대무용 뮤지엄'에 대구시립무용단이 초청됐다. '한국현대무용 뮤지엄'은 2월 28일부터 3월 9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극장에서 열리며 대구시립무용단은 3월 7일 오후 8시 「돈키호테」를 무대에 올린다.

지하철 참사 2주기 추모음악회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대구지하철 참사 2주기를 맞아 '사랑의 추모 음악회'를 열었다. 2월 21일 오후 7시 30분 성 김대건 성당에서 열린 음악회에서는 배남식 씨의 추모시 낭송과 소프라노 박말순, 테너 김형국 등이 출연, 「원죄 없으신 성모」 등을 불러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도했다.

광주소식

박진현
광주일보 기자

오는 10월

〈제1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개최

재단법인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 오는 10월 개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1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가 최근 문화관광부로부터 정관변경 승인을 받음에 따라 향후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개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정관변경이 1월 31일 허가된 데다 디자인총감독(이순중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선임도 마무리 짓는 등 굵직한 난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이달 중에 후임 이사장 선임을 시작으로 차기 이사회 및 디자인 전시부 구성, 디자인비엔날레 주제설정 등 기본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재단이 발표한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의 전시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비엔날레는 '예술'과 '산업'을 두 축으로 디자인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디자인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선임된 이순중 교수 역시 재단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이 총감독은 예술 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을 포괄하는 개념인 '디자인의 모든 것, 디자인의 미래'(Everything of Design, Future of Design)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총감독은 "10월 개막에 맞추기 위해서는 신속한 일정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이달 중으로 전시자문위원회와 함께 주제선정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 광주 디자인비엔날레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50억 원(국비 20억, 시비 20억, 민간협찬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005 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0월 말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전시컨벤션센터(GEXCO), 총장로, 상무지구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80~90년대 민주화 열망 다룬 전시회 2계

80~90년대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던 민주화의 열망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전시회가 나란히 열렸다.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을 재현한 〈전단지와의 만남전〉(2월 5~24일 광주시 북구 향토문화센터 3층 오월문화관)과 민주열사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민족 민주열사 유족사진전〉(2월 5~24일 북구청 갤러리)이 바로 그것.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관객들을 만나는 이들 전시회는 그 시대를 체험하지 못한 요즘 세대들에게는 민주주의의 숭고함을 새삼 일깨워주는 산 교육장이다.

▲전단지와의 만남전=광주시 북구문화시설

관리사업소가 오월문화관에 기증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매월 한차례씩 기획전을 열기로 한 이후 첫 번째로 마련한 전시. 광주시민들의 5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 전시에는 고선주(시인) 씨가 기증한 80~90년대 군부독재 정권의 폭압성과 인권탄압 고발 등을 담은 전단지 16점이 선보인다.

광복 전후에서 6·25, 80년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고비마다 거리에 뿌려진 전단지(일명)지는 격동의 역사를 생생히 증언하는 자료이자, 디지털 시대에 보기 힘든 '하날로그적'인 매체. 출품된 전단지들은 5·18 광주민중항쟁동지회와 광주·전남민주연합, 민주항쟁 창간호, 전국노동자협의회 등이 작성해 배포한 것들로 당시의 긴박한 시대상황을 엿볼 수 있다.

▲민족민주열사 유족사진전= '너는 오늘 우리로 살아!'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참여와 대안을 위한 공동체연대(대표 백정석)가 민족 민주열사의 정신과 아픔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민주열사 부모의 애끓는 모습에서부터 열사의 생전의 모습, 유품 등 총 23점이 전시된다.

여느 사진전과 달리 이번 전시에서는 현재 유족들의 생활을 담은 사진을 비롯해 망월묘역, 민족·민주열사의 의로운 죽음(분신 등)과 정신이 숨쉬고 있는 당시의 장소 등을 앵글에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시립미술관 도심건립 추진위' 구성

새로 지을 시립미술관 부지를 놓고 중외공원을 고수하는 광주시와 도심을 주장하는 미술인들 간의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립미술관 도심건립의 타당성을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시립미술관 도심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금명간 발족될 움직임이어서 '시립미술관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광주시와 '시립미술관 건립반대 범 미술인 투쟁위원회'(위원장 이영식, 범미투)는 최근 비공식 모임을 갖고 시립미술관 건립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범미투는 또 이같은 화해무드에 맞춰 오는 3월 중국 광저우(廣州)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한·중 미술교류전〉에 불참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철회, 미술인 26명이 참가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시립미술관 도심건립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우선 광주시 행정부시장, 문화정책실장, 동구청장 등 시청관계자와 지역 중진작가 2명, 범미투 관계자 1명 등 5~6명을 포함시켜 세부논의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추진위가 정식 발족될 경우 광주시가 지난해 말 설계회사와 설계용역체결을 끝내고 현재 북구 중외공원 내 북관관과 공원 사무실 자리(약 5천 평)에 건립을 추진 중인 새 미술관의 건립계획도 잠정유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말 새 미술관 부지를 동구 중앙초교에서 중외공원으로 전격 변경한 광주시는 미술관의 도심건립을 주장하는 미술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청 일대에 들어서서 아시아 문화전당의 전시관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줄곧 중외공원을 고수해 왔다.

전북소식

도휘정
전북일보 기자

젊은 작가들의 맛짱

'말 걸게 만드는' 시와 '식물의 하소연' 같은 시가 정면으로 만났다. 시를 쓴 시인들이 발가벗겨졌다.

아시아 문화심포지엄 개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아시아의 가치를 모색하는 대규모 국제 학술세미나가 2월23~25일 광주 5·18기념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아시아 문화심포지엄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박석무·백낙청)가 주최하고 5·18기념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광주 문화중심도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학술행사로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은 해외 석학 22명과 국내 시민운동, 문화연구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했다.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아시아 근대성과 삶의 양식 : 반성과 전망', '세계화, 지역화, 아시아의 정체성', '아시아, 민주주의, 지역', '아시아 시민 NGO운동현황과 연대의 전망', '글로벌 시대 아시아 문화연구의 쟁점' 등을 주제로 아시아의 정체성과 아시아 문화교류의 허브로서의 광주의 위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1월 21일 오후 7시 30분 문화공간 다문에서 열린 '젊은 작가들의 맛짱'은 사단법인 전북작가회의(회장·김용택)가 지역 문학계에 새로운 자극이 되기 위해 마련한 월례문학토론회다.

'맛짱'이란 말에 마음 굳게 먹고 나온 젊은 작가들은 문신 씨(32)와 김형미 씨(28). '착한 모범생' 같은 문씨가 봄날 따뜻한 햇살 같은 시를 쓴다면, '저돌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김씨는 한겨울 매서운 바람 같은 시를 쓴다.

전북일보 신춘문에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었지만, 누가 봐도 다른 시인들과 그들의 시, '맛짱'이란 타이틀까지 토론회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예고했다.

"김씨의 시는 그 안에 동물성과 식물성이란 두 가지 성질을 지니고 있어 필요에 따라 변화를 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의 전면에 나타난 화자의 현재적 모습은 동물적 속성을 갈구하며 현실을 견뎌내는 식물성에 가까운 것 같아요."

김씨의 시 '알균' 외 9편을 읽고 문씨가 떠올린 것은 '동충하초'. 문씨는 "김씨의 시에

는 '죽음'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데 식물적 존재인 화자가 죽음을 극복하고 치열한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동물적 속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씨를 처음 봤을 때 말 붙이기 어렵고 또 관한 말을 건넸다가 나만 멧쩍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심장의 뛰는 힘으로 우리 생활에 대해 얘기하는 그의 시를 읽고나니 자꾸만 말을 걸고 싶어지네요."

"좋은 시는 사람 냄새가 나야하고, 사람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사람의 피 냄새가 나야한다"고 말하는 김씨는 문씨의 「살구꽃」 외 9편을 대면하고 "세상을 향해 열려 있지만, 잿빛 우울을 머금고 있는 시"라고 표현했다.

시인들의 심심한 '맛쟁'에 선후배 문인들은 싸움을 붙이기 시작했다.

"문씨의 시가 완결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에 반해, 김씨의 시는 끊임 없이 변화하려는 독창성과 노력이 보여요. 두 시인의 기질 차이도 있는 것 같지만, 젊은 시인은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박태건 씨가 "김씨의 시는 덜 아름답지만 자기언어를 찾으려는 노력이 보인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준다. 서철원 씨는 "문씨는 현실 저변에 깔려 있는 많은 것들을 형상화하려고 하지만, 김씨의 시는 그 세계가 편협되고 좁은 것 같다"며 "문씨가 자기 시에 대한 고민이 더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둘 다 아직은 자기 신념이 부족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시는 삶의 핵심과 시대의 맥에 닿아야 하는데, 아직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평평한 긴장감이 김용택 회장의 한마디에 깨진다.

"문씨의 시에서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기억이 느껴져요. 기억을 재생하다 보니 상투적이게 되죠. 김씨의 시는 욕망의 언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적인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안도현 시인은 "욕망과 기억'은 90년대를 이끌어온 시인들에게 중요한 키워드였다"며 "뒷받치지 않고 좋은 시를 쓰려면 두 사람 모두 '기억'과 '욕망'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대 이후 등단한 시인들 중 주목받고 있는 젊은 시인들을 내세웠지만, 문씨와 김씨에 대한 선후배 문인들의 평가는 인정사정 없다.

"존경하는 선후배들이 제 시를 읽어주고 충고까지 해주시니 좀 창피해도 고마운 자리죠. 공부도 많이 됐고, 스스로에게 큰 자극이 된 것 같아요."

발개진 얼굴을 감싸는 두 시인은 그래도 시를 쓸 수 있는 힘을 얻어 마음이 든든해졌다.

천년전주사랑모임 창립

'아름다운 전통문화도시 전주를 지켜나가는 노둣돌' 천년전주사랑모임(이사장 김영곤)이 첫발을 내딛었다.

1월 28일 전주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에서 열린 천년전주사랑모임 창립대회에서 김영곤 국립극장이 초대이사장으로, 김영배 김제자활후견기관장과 이두업 예원예술대 산학협력단장, 이종민 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이 상임이사로 추대됐다.

천년전주사랑모임은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를 지향,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롭게 창조해 내기 위해 민간 주축으로 구성된 문화시민운동. 전주 팸투어를 비롯해 '무형문화재 모심의 날' '전주의 추억' 책자 발간' '주간 인터넷 웹진, 전주로부터의 편지 발간' 등을 주요사업으로 펼칠 계획이다.

온소리국악예술단 창단하는

김원선 전북대 교수



"미래가 없는 곳에는 희망 또한 없는 법이죠. 전공 하나에만 매달려 온 국악 인력들이 갈 곳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을 뿐입니다."

김원선 전북대 교수(44)가 젊은 국악 인재들을 꾸준히 연주 활동에 참여시켜 국악계 입문을 돕는 '온소리국악예술단'을 창단한다. 단원은 55명. 출신교에 상관없이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 전남대, 목원대 등 각 대학 국악 전공 졸업생과 졸업을 앞둔 3~4학년 학

생들을 아우르는 관현악 연주단이다.

"어떤 활동을 해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죠. 단순한 연주를 위한 예술단이라면, 창단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았을 겁니다."

김 교수는 "올해는 예술단을 알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다른 전문 단체와 비교하거나 짧은 시간 내 수준 높은 공연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온소리국악예술단 창단연주회는 오는 3월 9일. 김 교수는 관현악 중심의 온소리국악예술단을 '무용'과 '판소리'까지로 넓혀 종합예술단 면모를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법인으로 만들 계획이다.



2005 탐라국 입춘굿 놀이

새해 새날을 여는 2005 탐라국 입춘굿 놀이가 지난 2월 3·4일 '새해 새날에 탐라왕이 목우 끌고 오시다'를 주제로 제주시청 광장과 제주목 관아 등에서 열렸다.

입춘굿 놀이는 입춘날 제주목 관아에서 목사를 비롯한 관리들과 심방이라 불리는 무속인들이 같이 행하던 일종의 굿 놀이. 제주 특유의 세시풍속인 신구간에 1만 8000여 신들이 새로 바뀌고 지상에 내려온 1만 8000여 신들이 새해의 일들을 시작하게 되며, 비로소 제주섬에 새봄이 시작되는 입춘을 맞는다.

탐라국 입춘굿 놀이는 목사가 심방에게 의뢰, 새로 부임한 신들을 청해 대접하고 특히 농업의 수호신 세경신을 맞이해 탐라 백성들의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풍농굿. 지난 1999년 제주시가 80여 년 만에 복원, 해마다 열고 있으며 올해는 제주민예총 주관으로 열렸다.

2005 탐라국 입춘굿 놀이는 3일 오후 5시 제주 시청 광장에서 농경사회의 상징인 소를 모시고 풍년과 육축 번성을 기원하는 낭체교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고 이어 일반시민등도 참여한 가운데 탐라왕과 도황수, 제주 목사, 통인, 포졸, 행사 출연진, 10개 동 풍물패 등이 햇불을 들고 낭체(나무로 만든 소)를 앞세워 관덕정까지 낭체물이를 이어

가 시민들의 눈길을 붙잡았다. 이날 오후 7시부터는 제주목관아 연회각 앞마당에 풍물굿패 신나라와 놀이패 한라산 등이 참여 축하공연을 벌였다.

4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9개 동 민속보존회 외 풍물굿패 신나라이 참가한 가운데 거리를 돌며 액을 막아주는 거리도청제가 진행됐고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굿보유자인 김운수 심방의 집전으로 입춘굿이 재현됐다. 특히 이번 입춘굿은 △배포도업침, 날과 국 심김, 군문 돌아봄, 새 도림, 푸다시, 신청께, 수룩춤 및 할망다리 추김, 나까시리 돌림 등이 행해지는 초감제 △석살림 굿 △요왕 맞이 △도액 맞고 산 받음 등을 입춘굿 재치가 원형대로 재현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입춘 탈굿과 축하공연, 대동한마당, 입춘국수, 입춘부적, 민속놀이체험, 신년운수, 가운 써주기, 캐리커처 그려주기 등 풍성한 행사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주도예원, 제주 흙으로 빛은 제주천연도자기전



제주도예원(원장 강창원)이 지난 2월 4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예원에서 마련한 <가히나 제주천연도자기전>에서는 순수 제주토로 빛은 도기(질그릇)제 찾그릇 100여 점이 관객을 맞았다. 가히나는 제주도예원이 만든 초함어로 '처음이자 마지막일 유일함' 뜻을 가진 단어.

제주도기 찾그릇을 빛기까지 강 원장과 제주도예학회 회원들이 몇 년간 수놓음(품앗이)작업이 빛을 발했다. 물레 없이 순수하게 손 작업으로 만든 찾그릇들은 '제주그릇은 투박하다'는 통념을 과감히 부숴냈다.

작품마다 귀부인같이 단아한 것들도 있고 찌그러지거나 흰 것 등 저마다 닳은꼴이란 찾아 수가 없는데 이는 수작업과 제주 흙의 성질, 질감 등을 작가의 의도대로 자유자재로 작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불길히 통과한 길에 따라서 그릇 표면의 색깔이 기기묘묘하게 바뀐다는 점도 제주 흙으로

빛은 그릇들이 보여주는 맛이다. 찾그릇에 표적처럼 드러난 손자국들은 작가가 양질의 성분을 간직한 제주 흙을 가지고 얼마나 정교히 빚어냈는가를 가늠케 하는 실험의 결과물이자 꽃이나 나뭇가지 장식처럼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릇의 미세한 부분까지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란 없음을 그저 '양'다운 느낌의 그릇들은 전연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들이 짙은 (적)갈색을 띠고 있는데, 허은숙 제주도예원 연구원은 "화학약품이 들어간 유약을 전혀 쓰지 않고도 불의 힘만으로 자연발색되는 데다 제주 전통 돌가마(石窯)에 1,250도 이상의 고온으로 구워내서인지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빛깔을 간직한다"고 설명했다.

2005 뮤직아일 페스티벌

유럽 중견 연주자들이 대거 제주 무대에 올라 클래식 팬들을 사로잡았다. 프라드 파블로 카잘스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있는 클라리넷 연주자 미셸 레티엠크와 바이올리니스트 베로니크 보가츠, 비올라의 브르노 파스퀴에르, 첼리스트 프란스 헬머슨, 체코가 자랑하는 세계 정상의 현악사중주단 탈리히 현악사중주단 등 하나하나가 본고장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연주자들.

이들은 오는 제주신라호텔과 유라시안 코퍼레이션이 지난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마련한 2005 뮤직아일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매력적인 앙상블을 선보였다. 2005 뮤직아일 페스티벌은 지휘자 금난새가 새로운 감각으로 선보이는 신개념 음악축제. 국내 연주자로는 바이올리니스트 여은정, 첼리스트 송영훈 등이 참여했다. 저마다 화려한 명성을 자랑하는 유럽 음악의 거장들은 음악감독을 맡은 금난새의 지휘 아래 따로 또는 같이 무대에 서서 품격 높은 음악의 향연을 펼쳤다.

뚜람브러더스,

제주어로 만든 곡으로 꾸민 콘서트

제주어로 곡을 만들고 노래하는 뚜람브러더스가 지난 1월 21·22일 <노래로 들려주는 세상이야기> 콘서트를 가졌다. 뚜람브러더스는 제주도의 대표적 거리공연팀 테라제이의 회원으로 베이스의 손욱 씨와



보컬의 박순동 씨로 구성된 듀엣. 테라제이가 공연할 때마다 항상 무대에 서서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이들은 노래에 세상이 더 따스하고 행복한 곳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노래를 부른다. 그렇기에 이들의 노래에는 제주 4·3 이야기에서부터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팍팍한 삶을 위로한다. 살아 있는 것이 희망이라고.

90여 분 동안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도 뚜람브러더스는 제주어의 향기가 가득한 자작곡인 「몽생이의 꿈」, 「사는 게 뭘산디」, 「뚜럼 1」, 「뚜럼 2」, 「하늘꽃」, 「우리 살아 있음이 희망」, 「뉘둑이」, 「한라산이여 2」, 「할머니의 4·3 이야기」, 「축복」, 「공꺼로 얻은 세상 맨발 벗고 가라」 등을 들려주며 지친 이들의 기분을 위로했다.

제주의 젊은 미술인들이 꾸민 <일구구>전

새벽을 알리는 닭의 힘찬 소리와 함께 제주의 젊은 미술인들이 새싹을 내밀었다.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95학번의 모임인 미술동아리 일구구(회장 장민우)는 지난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딴 <일구구>전을 열고 신세대 작가들이 패기만만하게 목소리를 내질렀다.

올해 30세를 맞는 일구구 회원들은 자신들이 걸은 지난 길을 되짚어보는 성찰의 의미를 담아 전시회의 주제를 '거울'로 잡아 작품세계를 세상에 드러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멀고 험한' 전업작가의 길을 걷고 있는 회원들의 개성 강한 작품 30여 점이 출품됐다. 장르별로 보면 한국화, 서양화, 조소가 주류를 이뤘고 설치미술과 공예도 눈에 띄었다. 김은미·박소연·오기영·장민우·조이영·최지인·나정학 등 정회원 7명의 작품에 김승범·김형·김진희·송모숙·송주란·이기홍·이연정·표선희·한혜경 등 동기들이 따뜻한 정을 보냈다.

『文化藝術』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다 앞서가는 잡지, 질 높은 잡지, 알찬 잡지를 만들기 위해
『文化藝術』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부드러운 시선보다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해 주시면 검허하게
'좋은 잡지' 라는 결실로 보답하겠습니다.

『文化藝術』에 의견을 주실 분을 위해서

- 원고마감은 매월 15일입니다.
- 원고는 우편이나 FAX, E-Mail 또는 본원 홈페이지(게시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원고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 소 : 우 110-76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출판미디어사업팀
- 전 화 : 02-760-4568
- FAX : 02-760-4780
- E-Mail : magazine@kcaf.or.kr
- 홈페이지(게시판) : www.kcaf.or.kr

원고가 『문화예술』지에 게재되는 분께는 『문화예술』지 6개월분 무료구독 기회를 드립니다.